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10~120주년  
포여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1963년9월20일 第3種郵便物認可 (毎月一日発行)

2022년 4월 1일 (금) 제 815호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엔)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발행인 / 나카에 요이치·편집인 / 김 병 호

인쇄소 靑丘文化社

부활절  
설교

# 그들도 기억한 부활

<마태복음27:62~66>

장 경 태 목사 (총회 서기 / 후나바시교회)



코로나 펜데믹의 시대를 3년째 살아가고 있다. 인류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일들에 당황하다가 살아남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학교와 직장은 온라인수업과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스타일로 변화하기 시작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은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거리두기는 이미 몸에 배어버렸다. 당연히 교회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주일성수의 개념이 그전에는 주일교회에 오지 않으면 무조건 주일성수를 어겼다는 죄책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대면예배와 비대면예배 어느것에도 참가할수 있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는 많은 면제부를 가져다주었다. “코로나때문”이라고 하면 상당한 것이 면죄로 이어졌다. 코로나가 신앙적 면죄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다.

그 와중에 하계 도쿄올림픽이 있고 북경동계올림픽이 있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다. 이런 격변의 시대속에 우리는 또다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된다.

## 1. 그들도 기억한 부활.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죽은 이후의 일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대책회의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자신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러면 끝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를 죽였어도 끝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예수가 평소에 하였던 말씀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63)라고 한다.

그들은 빌라도를 <주>라고 부르고 예수를 <속이는자>로 부르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그가 부활한다고 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했다.

그들도 예수가 말한 부활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은 아마도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서 부활했다. 라고 속일것이라고 하는것이였다. 그래서 무덤을 병사들을 통해서 굳게 지켜달라는 특별부탁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왜 예수의 부활에 신경이 쓰였고, 예수를 죽이고서도 그 부활을 기억하고 대책회의까지 했을까?

## 2. 제자들의 기억

그런데 막상 제자들은 어떠했는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전까지 그들은 절망속에 있었다.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고, 고향으로 낙향했었고, 듣고도 실마, 하면서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요20:25)라고까지 하였다.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현실이였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두려움과 고통속에서도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한 예화가 있다. 어느교회가 건물 3층에 있었는데 2층은 술

집이였다고 한다. 교회에서 예배시간만 되면 2층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특히 금요기도회때는 2층에서 큰소리로 마이크로 노래를 불러대니 3층에서는 예배가 제대로 진행이되지 못할 정도되니 매주 금요일마다 2층이 망해서 나가게 계속해서 기도했다. 그런데 어느날 정말로 2층이 화재가 일어나서 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2층 사장이 3층에서 우리들이 망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법원에 고발을 했다. 고발을 당한 교회는 갑자기 큰일이 났다. 그리고 재판장에서 판사가 질문 “2층이 망하도록 계속기도했다는 사실이 사실입니까?” 교회는 대답하기를. 무슨소리를 하는거냐? 기도한다고 정말 그런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대답했다. 그 대답을 들은 재판관이 하는말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교회보다 술집 사장이 더 좋군요”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억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의 그 기억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신을 그의 제자들이 훔쳐갈것이라는 것으로 그들은 반응을 했다.

마태복음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있다.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웠있을 때 주님앞에 와서 고쳐달라 한다. 예수님은 바로 웅했고, 가서 고쳐주겠다 하셨지만 백부장은 말씀만 하셔도 된다고 하였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에 놀라워하셨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면서 12절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다. “그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결국 믿음을 보여야할 이스라엘은 믿음을 보이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보고싶었던 믿음은 다 이방인에게서 보았던 것을 우리는 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때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이도 이방인 백부장이였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기억으로 그들이 보인 반응은 부정적 반응이였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야 “죽음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리라” (마17:20)라고 하셨던 부활을 기억하였다. 그리고 제자들의 삶은 변하여 순교에 이르기까지 전도자의 삶의 살았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할까?

오늘날과 같은 우크라이나전쟁앞에서, 지진의 공포와 두려움앞에서, 내삼에 일어나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앞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기억해야할까? 바라기는 비록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의 기억이 되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았던 제자들처럼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신도들이,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관서정원

# 2021학년도 졸업식 거행 본과·연구과 합쳐서 6명이 졸업

2021년도 関西聖書神学院 卒業式이 지난 3월20일 오후, 본교(大阪北部教会)에서 举行되었다. 작년에 이어 世界的인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卒業生과 關係者만 참석하여 卒業式을 举行하였다.

卒業礼拝는 本神学院의 教務인 趙永哲牧師(大阪北部教会)의 司會로 시작되었고, 教授인 鄭然元牧師(大阪教会)가 <그리스도의 좋은 사람으로서> 라는 메시지를 傳했다.

그 後, 繼續해서 学院長 金武士 牧師에 의해 卒業證書 授与와 関西地方會 副會長인 朴榮子牧師(豊中第一復興教会)로



부터 祝辭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本神学院의 理事長인 全聖三牧師(布施教会)의 祝禱로 卒業礼拝를 마쳤다.

今年度に 卒業한 神學生은 本科 卒業生으로서 姜恩惠(大阪教会)、金昭延(大阪教会) 2명이, 또한 연구과 졸업생으로서 全珍相(大阪北部教会)、高榮玉(京都教会)、朴明順(大阪北部教会)、車有吾(京都教会)4名, 합쳐 6명이었다. 이들은 本科와 研究科를 卒業하여 각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쓰임받기 바란다는 抱負를 전했다.

関西聖書神学院은 1984년에 在日大韓基督教会에서 심길 人材 養成、教会奉仕를 위한 信徒教育과 訓練、그리고 神学形成을 위 해 関西地方會를 中心으로 設立된 以來 오늘에 이르고 있다.

(報告 : 趙永哲牧師)

武庫川教会

# 주철중 명예장로 소천 西宮와 武庫川教会서 22년간 장로 봉사



武庫川교회의 주철중 명예장로가 지난 2022년3월14일에 86세로 소천하였다.

故·주철중장로는 1935년12월, 한국에서 출생하여 일본으로 와서는 西宮교회에서 섬겼으며, 1984년에 장로 직임을 받았다.

1992년부터 武庫川교회에 이적을 하여 계속해서 장로로 봉사하고 2006년에 정년은퇴와 함께 명예장로로 추대받았다.

## 5地方會의 定期總會案内

### <關東地方會 第73回 定期總會>

·日時: 2022年 5月 3日 (火) 13:00  
·場所: 在日本韓國YMCA、9階國際廳  
東京都千代田区神田猿樂町2-5-5、TEL 03-3233-0611

### <中部地方會 第59回 定期總會>

·日時: 2022年 5月 3日 (火) 13:00  
·場所: 名古屋教会  
名古屋市 中村区 名駅2-39-11、TEL 052-541-1980

### <關西地方會 第73回 定期總會>

·日時: 2022年 5月 5日 (木) 10:00  
·場所: 大阪教会  
大阪市 生野区 中川西2-5-11、TEL 06-6712-3377

### <西部地方會 第38回 定期總會>

·日時: 2022年 4月 29日 (金) 10:30  
·場所: 神戸教会  
神戸市 長田区 梅ヶ香町1-2-20、TEL 078-682-3595

### <西南地方會 第72回 定期總會>

·日時: 2022年 4月 29日 (月) 11:00  
·場所: 福岡教会 福岡市 博多区 千代5-11-48、TEL 092-641-9551

## <2022年伝道主日献金> (2022年3月現在)

折尾教会	5,000円	名古屋教会	38,000円
東京中央教会	5,000円	品川教会	5,000円
東京教会	30,000円	横須賀教会	13,000円
新居浜グレース教会	3,000円	横浜教会	20,000円
三沢教会	10,000円	大阪教会	50,000円
長野教会	5,000円	武庫川教会	20,000円
広島教会	20,000円	合計	224,000円

## 講壇掛・ストール販売



在日大韓基督教会ではKCCJのロゴ入り講壇掛・ストールを制作・販売しています。価格は講壇掛・ストール共4色セットで各1万円(約半額) 講壇掛・ストール両方ご購入の場合は1万5千円です。※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在日大韓基督教会 神戸教会

# 春の音楽伝道集会

2022年 5月 15日 (主日) 午後 2時開演

入場料: 無料

トロンボーン奏者  
亀井 玲司(かめい れいじ)  
ピアノ奏者  
高橋 玲子(たかはし れいこ)



YouTube同時配信



67年神戸生まれ。12歳でトロンボーンを始め、呉 信一、近藤 孝司、大江 健司、ミッシェル・ベッケ、宗清 洋、横山 保男等の各氏に学ぶ。84年プロ活動開始。滋賀トロンボーン・フェスティバル大賞、中国音楽コンクール銀賞および神戸新聞社賞等々受賞歴多数。国内外にて年間約150回のコンサート、テレビ、ラジオにも出演。2019年4月には国際音楽協会と共に、台湾コンサートツアーを成功。文化庁および教育委員会より文化大使として各地に派遣される。ユーオーディア管弦楽団、アンサンブル・シオン各団員。

場所: 在日大韓基督教会神戸教会

住所: 神戸市長田区梅ヶ香町1-2-20

TEL/FAX: 078-682-3595

西部地方會 壮年会共催



# ●●● 전국교회여성연합회를 추억 ●●●

## <오랜 꿈을 이어가다>

나고야교회 김은미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 자녀 양육이 끝난 1990년 무렵, 나는 적극적으로 전국여성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총무는 서정순 목사님이셨고 늘 '여성의 의식 개혁'을 강조 하셨습니다. 여성 교인이 많은데 여성 장로, 목사가 적다, 의식 개혁에는 학습이 필요하다 ... '부인회'에서 '여성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다양한 연수회를 통해 우리에게 재미와 배움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시대는 거슬러 해방 직후, 당시 부인회가 양로원을 건축하려고 현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총회는 KCC회관 건설이 우선이라며 여성들의 뜻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 꿈을 이어받은 장로님들(예술분장로, 박선희장로)의 제안으로 전국 여성들이 일어나 '색동의 집' 건설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중부지방의 전국여성회 위원 3명(정정자권사, 강순명권사, 나)은 먼저 위원의 할당 금액을 정하고 또 각교회 여성회에 분담금을 요청했지만 설득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사람, 한사람이 적은 금액이지만 매달 꼬박꼬박 모아 주셔서 교회에 정해진 몫을 모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성들의 못다한 꿈을 '색동의 집'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전국여성회를 통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 <한국3교단 여성장로회와 교제의 열매>

고쿠라교회 김정자



내가 전국여성회 활동에 참가한 것은 50대 중반, 곧 사회국장으로서 봉사하게 되었고, 60대에는 재정국장, 후에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특히 한국의 교회여성연합회와의 연대에 의해서 훌륭한 믿음의 대선배로부터 받은 정신, 한결같은 믿음과 그 행동력, 기도에서 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실천, 믿음의 어머니, 민족의 어머니 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냉담해지기 쉬운 일본에 있는 교회에 사랑의 샤워를 은혜의 비처럼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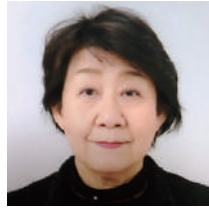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 악자를 향한 구제 시스템을 대한민국 전역에 일으킨 옥합 운동 선구자였던 나선정장로의 수고는 예수를 사모하는 여인들의 믿음의 증거로 받아들인 것은 감동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정신을 믿음의 증거로 삼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할 만한 것은 각 교회의 여성 장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당시 고쿠라교회는 제일동포 인권문제를 후세에 남기기 위한 자료센터를 계획 중이었으나 최창화목사 소천 후 암초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이 고민을 당시의 여성 교역자, 여성 장로였던 정숙자목사와 나선정 장로에게 호소한 것이 계기가 되어 3교단의 여성 장로 대표들이 큐슈에 방문해 현장을 연수, 함께 눈물을 흘려 주었습니다. 본국에서는 결성하기 어려운 3교단과의 제1회 여성장로회가 나가사키에서 결성되었습니다. 그 일이 바람을 일으켜 모금 활동이 전개되고 기부금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위안부문제, 강제연행문제를 배우는 장소로 2007년 서남KCC 자료관이 개설되었습니다. 이 만남, 사업은 전국여성회에 대한 봉사로 이루어졌습니다.

## <만남과 사귀는 나의 보물>

후쿠오카중앙교회 김행자



저는 29년전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젊은 여성 장로가 나왔다고 유명해져서 잇달아 여러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전국여성회와의 처음 인연은 와카야마 시라하마 연수회에서 간증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색동의집」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마도 비화호 연수회로 개회예배 때 설교를 부탁 받았습니다. 주일학교 설교 경험뿐이던 터라 큰 혼란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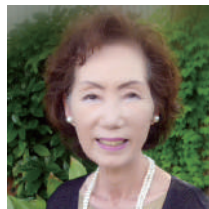
이후 선교국 위원 등을 맡고 서남여성회 회장도 되어서 위원회 참석을 위해 후쿠오카에서 오사카까지 몇번이나 다녔던지 지금은 츠루하시가 그럽습니다.

당시의 KCCJ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총회의 결의사항에 여성의 의견이 반영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국여성회가 이를 위해 열심히 움직이던 시기였고 그런 가운데 제가 장로로서 그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랄까 바늘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정말 잘 공부해서 여성분들도 총회 대표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한번은 "여러분은 보수적인 교회사정으로 장로가 되지 못한 분들이어서 안타깝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현재는 전국여성회에서 8명이 총대표로 선출됐고, 여성 장로도 늘어났습니다. 생각해보니 장로로서 전국여성회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성회에서의 만남과 사귀는 저의 보물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며 지금 저는 서남여성회를 측면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 <대표8명이 KCCJ정기총회 총대로>

고베교회 심정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2020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활이 바뀌었지만, 감염 방지를 하면서 교회도 대면 예배, 비대면, 온라인 형식 등 상황에 따라 예배가 회복되는 추세에 있어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국여성회를 돌아보면서 가장 큰 추억은 2001년 제46회 정기총회에서 8명의 전국여성연합회대표가 정대의원으로 총회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랜 신앙 선배들의 사역과 기도에 의해 새로운 문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의결권을 갖는 것은 의무와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함께, 여성회, 장년회, 청년회, 성도가 총회를 지탱하며 협력하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년은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서도 제56회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있어 많은 대의원이 참가하는 가운데, 여성회 대표도 각부에 배속되어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이번이 총회 회장, 부회장이 서부지방회에서 선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국여성회도 70주년이 지나 세대교체를 맞아 시대변화와 함께 '모림모리 푸드 팬트리' 활동을 시작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이 활동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솜을 전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전국여성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동시에 각 교회, 지방회, 총회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의 계승과 교회의 성장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 <여성을 위한 전화 상담 <색동>에 참여 감사>

## 오사카교회 임방자



상담위원 일동 (앞줄 제일 오른쪽이 임방자장로)

전국여성회 70년사 편집 후기에 저는 “30년 전 어느 날 고 박선희 장로님이 회사로 방문하셨습니다. 40년사의 의뢰였습니다. 꼼꼼히 조사해서 땀방울이 맺힌 손글씨 원고를 가져오셨습니다. 제가 전국여성회와 처음

으로 관련하게 된 때였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 무렵은 일이 바빠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 후 50년사, 60년사, 70년사 제작에 관여하면서 여성회의 역사와 노력, 활동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시점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13년 사무장로서 은퇴한 후 전화상담국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여성을 위한 전화상담 색동”은 전국여성회 60주년 기념사업으로 2004년부터 시작하여 2019년까지 운영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당번을 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국장이 되어 역부족을 통감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의 전화 상담 사업, 매월 개최하는 상담원 양성 강좌, 공개 강좌의 스케줄이나 테마·커리큘럼·강사등을 회의에서 상담하면서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충무를 비롯한 임원, 상담원들이 항상 진지하게 함께하고 협력해 주신 점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귀중한 배움이 되고 은혜의 때였습니다. 색동 전화상담은 종료되었지만, 이후 ‘모리모리 푸드 팬트리’에 이어지는 크나큰 사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KCCJ·CCJ선교협력위원회 공개강연회(2021년12월9일)

## 공개강연 연재 2

# 죄책(罪責)을 지고 주님께로 (2)

吉高 叶 (요시다카 카노우) 목사(일본NCC의장 / 일본침례연맹市川八幡教会)

### 2. 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를 막는 것

일본교회가 죄책감을 갖는다 하더라도, 평화와 화해의 복음을 따른다 하더라도 피해 다닐 수 없는 것이 ‘동아시아’라고 하는 지정학적, 역사적인 문맥입니다. 또한 韓/日/在日의 교회가 전쟁 책임의 심부(深部)에 도달하여 화해의 복음을 추구해 나갈 때 항상 벽이 되어 온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성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천황제>라고 하는 논리와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일본’은, 국제 정치적으로 말하면 미국과 중국의 대립, 중국과 대만의 긴장관계, 그리고 북한과 한국의 분단 상황을 안고 있는 ‘동아시아의 긴장과 위기’라는 맥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이 동아시아에 결정되고 고정되어버린 <전후 체제>는, <한반도 38도선의 분단 상황>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라고 하는 2개의 체제였습니다.

이러한 체제 탄생의 근저에는 일본의 <천황제>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천황의 이름으로 아시아 국가에서 침략전쟁을 일으켜 동아시아에 <대동아 공영권>을 세우려고 한 전쟁이 1945년 패전을 맞아 한반도에서는 일본군의 무장해체를 명목으로 <38선>을 경계로 한 남북이 분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럽에서 파시즘 전쟁을 일으킨 독일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독일을 동서로 나누어 베를린을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나누는 형태로 독일이 두 번 다시 야망을 갖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전쟁 책임의 청산을 일본 열도의 분단이 아니라 <한반도를 분단한다>는 비극이 한반도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일본의 전쟁책임을 한반도에서 민족분단이라는 형태로 짊어진 채로, 심지어 비극적인 6.25전쟁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한편, 일본은 일관되게 「국체의 유지」 「천황제의 호지(護持)」가 획책되었습니다. 그리고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오키나와를 잘라 버리고, 미국에 군사기지로써 내어주는 것으로, 천황제 국가로서의 일본의 「국체」를 유지시켰습니다.

그 후, 오키나와가 본토 복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서의 미군 지배 체제의 거점으로서의 오키나와의 의미는 변경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전장(戰場)으로서의 한반도>와 <기지로써의 오키나와>, 바꾸어 말하면 <38선의 분단의 고정화>와 <오키나와 기지의 고정화>는, 미국에 의한 극동의 <一大 군사 포메이션>으로서 유지 강화되어 최근에는 그 정권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에 슬라이드하여 팽창/확대되고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러한 ‘동아시아의 전후 상황’의 근

저에는 <천황이 군인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라고, <천황제가 Soft하다는 의미를 가지는 시대>가, 실은 같은 체제내에서 연결되어 그 역할을 절묘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일 외국인을 일회용으로 하는 <냉혹함>과, 천황제에 친숙한 좋은 관계는 아직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위슈마 샌다마리씨의 이야기를 했지만, 비인도적인 현행 입관법은 일본이 한때 한반도를 침략해 강제연행이나 강제노동에 많은 사람들을 몰아서 지배했을 때의 외국인 정책이 그대로 전후에도 반입되어 잔존되고 있는 법체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 책임을 청산하지 않고 잔존하고 있는 <외국인 이해> (인간 이해), 이것은 마찬가지로 전쟁 책임을 지지 않고 잔존한 천황제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인간 이해>인 것입니다.



지금 일본 사회는 잘못된 하라스먼트(Harassment괴롭힘) 사회이며, 헤이트스피치(Hatespeech)가 만연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 배후에 경제 쇠퇴의 초조함, 아시아의 맹주로서의 자존심의 좌절 등에서 오는 분노의 감정, 비정규 고용의 확대, 수입의 감퇴, 격차 사회의 결과 <總下流 사회>라는 실태를 밀어붙인 사람들의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역사 교육이나 이웃과의 만남 등의 경험에서 분리되어 자란 많은 사람들이 매우 단순하게 <힘한>으로 달려가, 징용공 문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분개해 가는 것입니다. 북한을 모욕하고 중국을 적시하는 동아시아 인근국에 대한 적의를 드러내면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과 표리 일체를 이루게 하여 <친화성이 있는 천황>이 사람들 안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적대감, 폭력적인 사고성과 부드러운 천황제는 이렇게 공존해 나가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번(2021년 10월)의 중의원 선거의 결과, 새로운 <개헌 준비>가 되었습니다. 개헌 세력이 다시 2/3을 넘어, 키시다 총리는 소신 표명 연설 속에서, 제2차 아베 정권이 2013년에 책정한 중장기 지침 <국가안보 전략>의 개정을 1년 이내에 행한다고 표명하고, 탄도미사일을 상대국 영역 내에서 저지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도 포함해, <모든 선택사항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런 위기적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한껏, 전쟁으로의 길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나는 <평화의 교환>를 마음에 새기고 싶다, 라고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계속